

“이주여성 가족 간 소통·상담 도울 것”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가정지원 양성교육 5기 개강

결혼이주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불교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전문자원봉사교육을 해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올해로 5기를 모집하면서 봉사단원이 260명을 넘어서며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구완자)은 10월 2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제5기 다문화가정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구완자 단장은 “한국은 140만 다문화인 시대를 맞았다.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6년 새 5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추세를 보이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특히 이주여성의 도움이 더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리아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포교대상이라고 보다는 봉사 대상으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기 교육생은 40여 명. 이들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모여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자원봉사 의미,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법 및 상담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기간이 조금은 짧은 감이 있지만 프로그램은 알차다. 강사진은 윤석인 소장(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장미나 연구교수(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김예리 센터장(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허오영숙 조

직집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현정 센터장(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역할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가족의 상담 실제 △이야기 테라피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해 및 지도 △다문화가정지원봉사자가 알아야 할 법률과 지원 서비스 △결혼이주여성에 다가가기 위한 성공적인 스피치 훈련 등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가정불화로 인한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을 봉사자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장미나 연구교수의 △여성결혼이민자 상담 사례 △성공적인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방법과 이경육 교수(원광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야기 테라피가 그것이다.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총무국장은 “이주여성이 가족 간 소통의 부재로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기술 및 이야기 테라피를 가르쳐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봉사자들도 이주여성을 대할 때 자연스러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인 출신이면서 다문화가족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현정 센터장을 초대에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을 2008년부터 매년 50~60명씩 뽑아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5기 교육생들이 교육 받고 있는 모습.

이어 그는 “강사진들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최근 업데이트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강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3기 출신인 김필연 불교여성다문화봉사부단장(62)은 “결혼이주여성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교육에서 익힌 사례를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결혼 이주 여성들의 다문화체화와 야외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해 비디오투로 녹화하고 사례교육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5기 교육생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함됐다. 김승목(64) DCT 미술심리연구소장은

“남을 돕고 봉사하면서 살기를 발원해오다 결혼이주여성을 돕는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앞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치료상담분야일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수여한 다음 서울 지역 구경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알선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 4기까지 배출된 220여 자원봉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등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108산사순례, 창립 6주년 법회

10월 31일 오후 2시 시청 광장서 열려

매월 전국 사찰을 돌며 대규모 순례활동을 펼쳐 신행문화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순례 6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한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농촌사랑 나눔 봉사 한 마당'을 주제로 법회를 연다.

법회는 기원대법회와 영산재로 나눠 진행되며, 농촌사랑 직거래 장터와 농촌다문화 가정 지원 모금행사 등이 진행된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현우 스님(교육원장), 지원 스님(포교원장), 보선 스님(중앙총회위원장), 황

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6년 동안 72곳의 사찰을 순례했으며, 순례기간 농어촌 직거래 장터와 군장병 초코파이 보시, 장학금과 효행상 시상 등 다양한 자비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불자의 바른 마음을 기반으로 농촌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봉사하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02)900-0193 이은 기자

교육포교 30년 매진... 기념행사 개최

동산반야회, 11월 10일 전통예술문화공연장서

교육포교를 일념으로 한길을 달려온 동산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는다.

동산반야회(이사장 이상우)·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11월 1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동산인의 밤'을 개최한다.

행사는 3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2부 기념공연과 3부 동산가족만남마당으로 구성됐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기념공연에는 성악, 천수소리, 난타, 사물, 한량무, 다도 퍼포먼스, 천수바라나비춤, 오카리나&하모니카 연주, 임춤 등이 선보인다. 오후 6시 30분에는 공양 및 장기자랑과 불교미

술학과 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가 열린다.

동산은 1982년 11월 13일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이던 무진장 대종사를 법주로 해 김재일 법사가 중심이 돼 2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함께 창립한 단체다. 이후 불교정법의 대중화, 대승불교의 생활화, 한국 불교의 정도화를 위해 30년간 재가불자 수장교는 학생·스님은 7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이다.

동산은 “그동안 동산이 걸어왔던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고 더욱 큰 발전을 서원하고자 30주년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02)732-1206 이은 기자

사형수 미술지도 10년...작품 대상수상 영광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교수 10년간 사형수 지도

“그림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저랑 약속해야 합니다. 백지상태로 돌아가선부터 갖는 연습을 하세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인 이모씨(남, 43세, 범명 해답)의 삶에 변화가 온 것은 이인자 교수(경기대 예술대학 명예교수, 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원장)를 만나고 나서 부터다.

이씨는 2000년 초 당시 교정위원으로 활동한 부산 자비사 삼중 스님과 교정교화센터 이인자 교정위원을 만나 그림 배우기를 직접 청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인자 위원을 만나 그림의 기초부터 시작했다.

이인자 교수는 2004년부터 매달 한번씩 그림 지도를 해오고 있다. 구치소 안에서서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연필과 종이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 교수는 “이씨에게 선 갖는 것부터 차례로 시켰다. 선을 그으면서 색의 농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 것. 그림의

소재는 오로지 계란. 아무런 꾸밈과 변화가 없는 계란을 명암만 주어 연필로 표현하는 것은 지루한 작업이다. 하지만 재소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인유바라밀 정신이다.

구치소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형수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이씨는 모범수였기에 가능했고, 계란을 화두처럼 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10년간 기초부터 실력을 쌓아온 이씨는 10월 26~31일 경기도 과천시 만화관에서 개최된 제41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자신의 작품 '일상'을 출품해 가구, 공예,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약 500여점의 출품작 가운데 대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정갈한 필력으로 둥근 알을 연필로 표현한 작품으로, 반복적 이미지, 부화할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둥근 알의 입체감, 구성능력, 명암의 다양한 깊이가 잘 표현되어 있고 '일상'이라는 주제를 독창적



10년 간 연필로 계란만을 그린 사형수 이모씨(범명 해답)의 대상 수상 작품 '일상' (서양화, 70x50cm)

시각으로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금까지 사형수의 작품 출품과 대상 수상 전례가 없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며 “꾸준히 계란 하나만을 소재로 삼은 것이 이씨에게는 수행이기도 했으며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김필연 센터장)는 2001년 10월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최고수들을 11년째 만나오며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 기자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체육대회 개최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10월 21일 계수초등학교에서 회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포교사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체육대회는 1년 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한 포교사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단원들 간의 단합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제17기 신규 포교사 환영 법회를 겸했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포교활동을 담당하는 포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신규 포교사들도 많은 원력을 갖고 포교활동에 전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어로 불교토론 어때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영어강좌개설 11월 3일 우봉 스님 영어법회

영어로 불교 기초교리도 배우고 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는 영어 강좌가 마련됐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봉)는 11월 12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4주간 동국대에서 'Hello Dharma' 불교영어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불교기초(Basic Buddhism)와 불교 응용 (Mindfulness&Healthy Living) 등 2과목이다.

불교기초는 초급영어 수준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 6시 30분 진행되며 회화중심 수업으로 불교 세계관, 삼보, 사성제, 8경도, 불교와 서구사회 등을 주제로 다룬다.

불교응용은 중급영어 수준으로 매주 월·

수요일 같은 시간, 붓다의 일생과 주요 행적을 살펴보고, 탁날한 스님의 마음명상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나눌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1월 7일까지이며 수강료는 학생·스님은 7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이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11월 3일 오후 2시 동국대 국제선센터 대각전 법당에서 우봉 스님을 초청해 토요영어법회를 개최한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우봉 스님은 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1972년 승산 스님을 만난 뒤 미국인으로서 첫 제자가 됐다. 이후 승산 스님을 도와 폴란드에 관음선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로 전법활동을 하다 2009년 출가했다. 현재 우봉 스님은 베를린 선센터와 한국 향원사에 주재하며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 (02)2260-3891 이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뚝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뚝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뚝(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택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일일결제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개,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